

##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소고

- 한국어(학)교수협의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김창석  
키르기스 국립법률대

### 1. 시작하는 말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문화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1993년부터 시작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교육은 비슈케크와 오슈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대학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1992년 비슈케크 인문대학교와 키르기스체르 대학이었으나 지금은 16개 대학<sup>1</sup>에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보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열성을 다한 교수 강사진들의 강의와 노력 그리고 동방의 작은 나라 언어인 낯선 한국어를 러시아문화권 속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하던 청년대학생들이 잘 받아들여 이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한국어 공부를 마친 학생들 중에는 키르기스공화국과 한국에서 각 분야의 통역 및 교사와 직원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기스스탄에 한국어가 보급되고 교육되어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의 각 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금년 2월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를 이 자리에서 논한 후 한국어학과의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기술하려고 한다.

### 2. 키르기스 대학 내 한국어학과 현황

키르기스 내 16개 대학교에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공 부전공 교양 과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공대학은 7개 대학이며<sup>2</sup> 나머지 대학은 부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교수진은 학생 대비 평균 교수 1명당 학생 16명 정도인데 키르기스 한국어(학)교수협의회<sup>3</sup>에서 조사한 바로는 16개 대학에서 총 8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교수(강사) 숫자는 53명으로 한국인 교수가

<sup>1</sup> 인문대, 경제대, 국립대, 아라바예바대, 오슈국립대, 법대, 나른국립대, 오슈사회대, 오슈공대, 슬라비안대, 언어문화대, 체육대, KKC 대, 국제슬라비안대, 비슈케크공대, 케인대.(설립순)

<sup>2</sup> 인문대, 국립대, 아라바예바대, 오슈국립대, 언어문화대, 나른국립대, KKC 대.

<sup>3</sup> 회장으로 김창석 교수(법대)가 있다.

32명이며 현지인 강사가 21명이다. 학생 16명 당 교수(강사) 1명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각 대학에서 현지인 전임(유급) 강사 이상 교수요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원 수급이 어렵다고 대답한 경우가 96%나 되었다.

이는 현지인 교수(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교원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한국어학과 교수(강사)로서 합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기에 교수(강사)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타 기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도 교수(강사)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어학과 교수(강사) 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각 대학에서 한국학과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고 관심도 부족해서 학교의 지원은 사실상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키르기스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 대한 충분한 한국어교원을 현지에 파견할 여건도 되지 못하기에 대부분의 대학교 한국어학과 현지인 교수(강사)는 현지에서 배출된 학생들 중심으로 고용되고 있다. 현지인 교수(강사)의 경력은 대개가 3-5년 이상으로써 나름대로의 강의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초기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려인 동포들이었으나 차츰 현지 키르기스인으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현지인들이 더욱 많은 학생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학에서 고려인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려고 입학한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는 전체 대학생 중에 약 21% 정도인데 한류 열풍을 타는 학생들이 키르기스인 대학생들이 더 많은 현상이다. 매년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4개 대회<sup>4</sup>에 참석하는 민족 별 학생수를 보더라도 키르기스 현지인 대학생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민족적인 구분이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육원을 이곳에 세웠고 재외 동포재단을 통해 지원 사업을 하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한국어 교육에 헌신하는 한국사람으로서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열이 점차 식어져 가는 듯 보여 안타깝다. 키르기스스탄 거주 고려인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어 교육에 고려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수학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국어가 정체성과 결합돼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있는데, 1937년 9세의 나이로 러시아로 이주한 안모 씨는 60년 넘게 한국어를 잊

<sup>4</sup> 키르기스 한국어학과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말하기대회, 퀴즈대회, 한국가요제,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한국어학과 대학간의 의사소통 정보교환 협력사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 살아왔다. 자녀들과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고려인들과 만나 대화할 때에도 러시아어를 사용했다. 그러던 안 씨는 한국어 선생을 만나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게 됐다. 처음에는 몇 개의 단어만 알아들었지만 이내 한국어 어휘들이 살아났다. 안 씨는 “조선말을 사용하면서 가슴에 열이 났다. 마음이 통한다. 죽기 전에 까레아에 가고 싶다” 며 눈물을 흘렸다. 이는 한국어 사용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한가지 예만 보더라도 2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더 많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한국어 학습의 문제점

학년별 학생분포를 볼 때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처음 입학하여 1년간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점차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몇 가지로 알아볼 수 있다.

- (1)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 입학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지 않게 되니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게 된다. 다른 나라 언어를 습득하여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점차 학년이 올라 갈수록 어려움은 더해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외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 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학교 수업에 대한 준비와 반복 연습을 잘 하지 못해서 한국어가 더욱 어려워지고 등록금 마련도 쉽지 않고 공부도 어려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 (3) 이곳 현지 대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학교 공부에 줄임장을 따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학교 수업을 더욱 등한시하는 것이다.
- (4)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전문성 있는 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과 충분한 학습교재 마련 및 교안 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수업 후 학생들의 바깥 생활에도 지도와 관심을 가진다면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학생 분포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뇌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보다 평균 11% 작지만 여성의 뇌가 더욱 정교하게 발달돼 있고, 정보를 처리하는 회백질이 더 크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의사소통을 돕는 신경다발도 훨씬 두껍다. 이 때문에 여자가 더 빨리 말을 배우고 언어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한다.<sup>5</sup> 그래서인지 키르기스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이 많고 남학생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전통<sup>6</sup>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남학생의 수가 적은 현실이다. 키르기스 각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남녀학생의 비율만 보더라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와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각 대학교 평균 남학생 1.5명 대 여학생 8.5명의 비율을 볼 때 불균형이 심한데 적어도 4:6 정도의 비율로 올라가서 남성 교수(강사)진과 통, 번역관들도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 5. 한국어학과에 대한 기대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각 대학마다 한국어 강의와 학생 모집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큰 편으로 조사되었는데 “매우 크다”고 응답한 대학이 52%이며 “크다”는 43%, “보통”이 5%였다.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당국의 기대감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작 학교 당국의 행정 및 재정 그리고 한국인 교수들의 주거 지원은 열악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것도 있었다. 이는 각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들이 한국이나 다른 기관들의 후원이나 한국인 교수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학과를 잘 감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한 면도 있다고 본다.

#### 6.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한국어학과 재학생들이 스스로 가장 적극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화, 듣기, 문법, 어휘, 읽기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대화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은 공부하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초 문법을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인해 졸업을 하고서도 자유로운 한국어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문법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통상 뒷사람에게 쓰지 않는 ‘뚝뚝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예

<sup>5</sup> 이대학보(2004년 9월).

<sup>6</sup> 구 소련권 때 쉬폴라(초중고)교사들은 80%이상 여성들이었다.

를 들어보면 “머리가 똑똑하신 (윗사람에게 쓰지 않음) 선생님들께서는 색종이에 자기 자신에 대해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똑똑하다’를 사용해야 하는지 대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학생의 실수를 볼 수 있다. 문법 또는 어휘, 조사 위주로 가르쳤던 한국어 교육에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과제일 것이다. 대화나 작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실력 향상을 위한 각 대학별 자체 프로그램을<sup>7</sup> 개발 중인 대학이 절반인 반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대학도 50%나 되었다. 고무적인 것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수(강사)진이 고심하고 있으며 실험 중인 대학도 있다는 것이다.

### 7. 한국어 교재에 대한 반응

1990년대 이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 강좌를 열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론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한국어 교재나 사전류 개발이 계속 되었다. 향후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수준 높은 단계별 교재를 개발하고 현지 실정에 적합한 교수법을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키르기스 한국어(학)교수협의회가 조사한 바로는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 러시아어로 설명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이 90% 이상이며 두 곳의 대학만이 키르기스어로 설명된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각급 대학교에서 발간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이 73%이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간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은 24%였으며 나머지는 자체 개발된 책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키르기스 현지 대학생들에게 통일된 공동 교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로서는 키르기스 한국어(학)교수협의회에 소속된 16개 대학의 공동교재 발간은 당분간의 의미가 없을 것 같다.

### 8. 학생들의 학구열

교수(강사) 입장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태도를 평가해 보라는 질문을 했는데 게으르다(50%), 소극적이다(20%), 열정적(30%)이다 순

<sup>7</sup> 자체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연장 학습지도, 여름 겨울 방학 중에 집중 회화 훈련, 단기 봉사팀 방문 시 봉사활동 동행, 한국 요리와 노래 교실 운영, 교민모임에 참석해서 한국어 대화 듣고 작문하기 등을 준비하거나 개발하여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다.

으로 나왔는데 열정적인 학생들도 대개 1-2 학년 때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다가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차츰 수업태도가 나빠진다고 조사되었다.

각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장래 희망은 통,번역관이 80%로 가장 인기가 높았고 한국어 관련직업 20% 순이었고 한국어 교수(강사)는 현실적인 처우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0%였다. 2014-2015년에 한국에 유학을 갔다 온 학생은 13명이며 유학을 갔다 온 이후로 한국어 실력은 모두 향상되었지만 학습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 공부한 학점이 복학한 대학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학 갈 때 학년으로 다시 복학하므로 인해 유학 후 실력향상이 이루어진 마당이라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울러 유학 후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한국 음식점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정작 학교 출석률은 매우 저조해 진다고 했다.

## 9. 발전에 대한 소고

키르기스 한국어(학)교수협의회에서 조사한 설문을 토대로 키르기스 대학 내 한국어학과 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국어학과 발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잠시 적어 보고자 한다.

### 9.1. 교수연수 및 연장교육 실시

훌륭한 선생 아래 좋은 제자가 나온다고 본다.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원의 질과 양이 풍성해지면 한국어 교육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원의 한국 연수 교육 기회 부여 및 현장 연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체계적인 교수법을 익히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한국어 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비전문 인력들이 교육현장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각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들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직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8</sup>. 그렇다고 한국에서 현직에 있는 전문교원들이 자원하거나 파견되어 이곳의 800여 대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강의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어 교수들의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가서 연수를 받던지 한국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현장에 와서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해주면서 먼저 한국인 교수들의 질을 올려 주어야만 된다고 본다. 더군다나 현지인 교원들은 더욱 심각한데 한 예로 교수협의회 모임에 와서도 한국인 교수들과 의사소통을 한국어로 시원

<sup>8</sup> 처음부터 교육목적으로 온 분도 있고 다른 이유로 왔지만 점차 교육 쪽으로 중심을 잡고 대학에서 헌신하는 분들이다.

하게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니 교수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대화에서도 한계가 있는 현지인 교원들이 앵무새마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반복하여 교육시킨다면 학생들에게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이 갈 것이다. 한국인교수들은 물론이고 현지인교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교수, 교원을 위한 업그레이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어교원의 지위가 보장되고 자부심을 느껴 일 할 맛이 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 교원 워크숍도 열어서 그들의 고충도 귀담아 들으며 해결방안도 논의해가면서 한국어교수와 대등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 9.2. 교수의 강의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학구열 고취를 위한 강의 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구열은 높는데 강의의 질과 열성은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결강을 하거나 보강을 하는 일은 줄여야겠고 교안을 미리 잘 준비하여 학습자에게 영양이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어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와 반응이 타 학과 교수들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한국인 교수들이 더욱 학생들을 살펴보고 강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도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 9.3. 정보의 공유와 협력

키르기스 교수협의회가 새롭게 태동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및 비슈케크 한국교육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통해 한국학 교육자들이 소통하고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상호 교류도 이뤄져야 한다. 이미 발간되었거나 연구중인 교재나 자료들을 공유하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작년에 새롭게 태동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수협의회마다 큰 것으로 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각국의 교수협의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 교수협의회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교수협의회의 모범적인 운영과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키르기스 교수협의회의 모습을 각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다리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한국어학과 발전을 위해서 현지 한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이 진행하는 쉬폴라(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한국어 교육생들의 정확한 정보를 교수협과 각 대학에 연결해서 대학 진학 홍보와 학생 유치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9.4. 현지인 전문 교수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한국어 수요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곳에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기가 대단하지만 증가한 한국어 학습자 수에 비해 한국어교사 부족 현상을 채우기는 당분간 벽차 보인다.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어 교원으로 자원하려는 사람들이 설문 조사를 통해 본 바로는 전무한 가운데 그나마 현재 강의하고 있는 현지인 교원들 조차도 기회만 되면 그만두고 더 좋은 보수와 대우를 해주는 일반 기업체로 이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전문적 교원 양성은 먼 장래를 내다 볼 때 더욱 필요한 일이다.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적 교원이 양성되고 각 대학에 이런 전문적 교원이 한 두 명씩 배치된다면 강의의 질도 향상되고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 16명 당 1명의 교수(강사) 배치로는 언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회화 위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편에서는 교수들과 1:1 접촉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 교육기관에서 각 대학으로 전문직 교원들이 파견되거나 자체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육하는 일이 큰 과제라고 본다.

### 10. 맺는 말

1990년대 이후 여러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2000년대 들어서 한류 열풍을 타고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학생수는 급증하고 있다. 비슈케크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교육원과 쉬콜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16개 대학교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40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sup>9</sup> 한국어 기초를 쉬콜라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각 대학 한국어학과 의 미래가 밝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계속 공부하려는 학생은 매년 5%도 되지 않지만 우수한 쉬콜라 학생들을 대학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각 대학마다 벌이고 있다. 각 대학들도 장학금지급, 한국대학의 연수기회 부여, 교수협 주관의 각종대회 참가 및 자체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중이며 한국어 교수와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한국어학과를 통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sup>9</sup> 비슈케크 한국교육원통계(2014년) 교육원 1203명, 쉬콜라 2586명,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130명, 한글학교 203명.